

2018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 Program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캘리포니아 Redding
파견대학	Shasta College	기간	2018. 7. 1. ~ 7. 2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캘리포니아주 Redding,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로(약 12시간) 가서 국내선을 타고 레딩으로(약 1~2시간) 이동한다. 학교 규모는 처음에 굉장히 커 보였는데 순천향대학교를 왔던 샤스타 친구들이 순천향대학교와 비슷하거나 더 작을것이라고 얘기 하고 난 후 학교를 돌아보니 우리 학교와 비슷한 규모로 보였다. 기숙사와 수업 듣는 곳, 밥 먹는 곳, 우리가 쓸 수 있는 부엌, TV보는 곳, 기숙사 중앙에 있는 middle room 이렇게만 사용하였다. 기숙사는 우리학교처럼 그런 기숙사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건물은 총 2층에 2인 1실로 한 층에 20~30명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세탁기와 자판기가 1층에 딸려 있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초반에는 걱정이였다. 하지만 마지막 돌아올 때에는 아쉬움과 그리움 밖에 남지 않았다. 한국 가는 것에 대한 좋은 점은 한식 밖에 없었다. 그냥 더 있고 싶었다. 그 정도로 외국인 친구들과 한국인 친구들이 너무 착했고, 잘 맞았다고 생각한다. 순천향대학교에 왔던 외국인 친구들은 우리를 더 잘 챙겨주었고 2인 1실에 대부분은 한국인 1명 외국인 1명이 같이 쓰는데 나의 룸메이트는 최고였다. 땅 덩어리가 커서 어딜 가려해도 차로 이동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외국인 친구들이 차가 있었고, 우리를 어디 한군데라도 더 데려가주고 싶어 했고 필요 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해 주었다. 정말 착했다. 우리도 외국인 친구들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각자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편지와 선물이 많이 오고 갔다. 정이 많은 친구들은 많이 울었다. 분위기는 정말 최고였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수업은 크게 웹 디자인, ESL(영어 수업)이 있었다.

	웹 디자인 시간에는 코드와 HTML 사용 방법을 배웠고 최종 목표는 자기의 웹 사이트를 꾸며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 이였다. 수업 방법은 컴퓨터실에 가서 각자 컴퓨터로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익혀 자신의 웹 사이트에 적용 하는 방식이다. 교수님은 정말 차근차근 잘 알려주시고 수업 속도도 빠르지 않았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 볼 수 있는 분위기 이고, 좋은 기억이 많다. 에어컨이 많이 썰서 그 시간에는 다들 긴팔을 챙겨왔다. 과제는 3주의 마지막 수업시간에 발표 하는 것이 전부라서 부담감이 전혀 없었다. 발표 전날에는 다들 분주했지만 발표 후에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ESL(영어 수업)시간에는 여러 번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기회가 있다. 교수님의 열정은 너무 좋았으나, 우리들과의 마찰이 없진 않았다. 배우는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 할 때도 있었고, 하루에 받은 프린트 양이 어마어마 할 때도 있었으며, 조금은 웃긴 미션을 내주기도 하셨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필드트립 Fireworks show(Redding Civic Center) : 7월 4일은 Holiday였다. 수업 없이 쉬다가 친구들의 차를 타고 기숙사에서 Redding Civic Center에 해질 녘 즈음 도착하니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우리도 자리를 크게 잡고 돛자리에 앉거나 누워서 해가 지길 기다리며 사진을 찍고, 해가 지고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다. 본 것 중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터진 불꽃놀이였다. 준비물과 추가비용은 없었다. Turtle bay : 거북이와 몇 종류의 동물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오후에 햇빛이 강하고 야외였기 때문에 선크림과 선글라스를 챙겨가면 좋을 것 같다. San Francisco :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3~4시간을 달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다. 자유시간에 룸메이트와 재밌게 돌아다녔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큰 도시를 다녀서 좋은 기억이 많다. 좋은 만큼 돌아갈 때 아쉬웠다. 조금이지만 구경 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돈을 챙겨가면 좋을 것 같다. 레딩과 다르게 조금 쌀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긴 옷을 많이들 챙겨 갔다. Pool Party : 토요일에 수업 없이 쉬다가 시간에 맞춰 어떤 집으로 가서 Pool에서 다같이 놀고 출출하면 음식을 먹고 여유롭게 쉬면서 놀았다. 준비물은 수영복과 선크림이다. Kayak Tour : 카약은 재밌었다. 나와 룸메이트 안토니는 카약 챔피언이다! 물에 젖어도 되는 옷과 선크림을 챙겨가면 좋을 것 같다. Shastar Caverns : 샤스타의 큰 동굴이다. 많이 걸어서 편한 운동화가 좋을 것 같다. Shasta Dam : 큰 댐을 갔었다. 지하로 많이 내려갔을 때 신기했었다. 많

	이 더웠다. 선글라스와 선크림! Waterworks Park : 워터파크 정말 재밌었다. 기구도 재미있었고 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계속해서 탔다. 준비물은 수영복과 선크림x100 Crysal Geyser Tour : 이 곳은 물공장이다. 물공장 내부를 보고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의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Health Sciences : 의료를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아기가 출산되는 것을 인형으로 우리가 직접 체험 하였다. 청진기로 이곳저곳 대보기도 하였다. Burney Falls Hike : 폭포가 있는 곳. 물이 엄청나게 차가웠고 폭포는 너무 멋졌다. 물에 들어가려면 여벌 옷을 하나 챙겨가면 좋을 것 같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햇빛이 굉장히 강하고 건조하다. 머리를 안 말리고 나가도 금방 마른다. 선크림을 많이 바르는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이걸 쓰는데 여기가 더 덥다. 습하지 않은 것이 레딩의 좋은 점 이였다. 우리가 있을 때에는 오후 9시는 되어야 어둑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위험한 일은 전혀 없었다. Homeless들을 몇몇 보았지만 우리에게 해가 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숙소	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기숙사 시설은 좋게 느껴졌고, 분위기는 정말 최고였다. 지금도 그 기숙사에서 놀고 싶은 마음이다. 규칙은 그렇게 딱딱한 것은 없고 모든 친구들이 융통성 있어서 좋았다. 오히려 내가 방을 깨끗하게 쓰지 못해서 룸메이트에게 미안했다.
식사	학교식당 (☒) 외부식당 (☐)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학교식당 밥은 괜찮았지만 자주 먹다보면 질려서 외부식당을 친구들과 가서 먹거나 하였다. 특히 샐러드가 먹다보면 맛있었다. 아침은 초반에만 먹다가 나중엔 자느라 못 먹었다.
교통	시내교통 관련 교통을 이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버스가 있는 것을 가서 며칠 후에 알게 되었는데 타야지 했는데 결국 한 번도 못 탔다. 우버도 부를 생각은 했었지만 친구들이 모두 데려다 주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지출 금액과 현지에서 추가 지출한 총 지출내역을 써 주세요.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보험료	35,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쇼핑	400,000	선물 등
외식	300,000	
기타	100,000	간식, 카페 등
합계	835,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내가 영어를 좀 더 잘했으면 나에게 고맙게 잘 해준 친구들에게 더 잘 표현하고 더 잘 어울렸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생각보다 그 친구들에게 고맙고 감동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가서 지내다보면 프로그램에서 만난 사람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진짜 친구가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정말 고맙고 친한 친구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갈 때 한국친구들과도 전혀 친하지 않고 어색했다. 그리고 바로 외국인 친구들 여럿을 만난다. 걱정되기도 했지만 3주는 정들기에 충분했다. 갈 때에는 다들 정들어서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 뿐이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이 이 프로그램에서 내가 얻은 가장 큰 좋은 점인 것 같다.

마음 열고 먼저 인사를 건네면 그 때부터 한 두 마디씩 나누고 친해지면 그 때부터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 같이 야식을 만들어 먹고, 포켓볼을 치고, 공놀이를 하고, 고민이 있으면 들어주고 그 때부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친구들이랑 여행이다. 그 과정이 지나고난 지금 너무 그립다.

첫 날 룸메이트를 만났는데 첫인상은 조금 무뚝뚝 할 것 같았다. 더군다나 영어를 못하는 나는 더 걱정했는데 정말x100000 최고의 룸메이트였다. 장난꾸러기였다가 정도 많고 너무 착해서 고맙다고 편지를 써서 책상위에 올려두면 답장을 써서 내 책상위에 몰래 올려놓고 서로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 웃겼다. 미국에는 내 좋은 친구들이 여럿 있다. 이 기분 굉장히 좋고, 그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우릴 찾는다면 우린 진심으로 잘해 줄 자신이 있다. 영어 공부를 하러 갔다기보단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온 프로그램 인 것 같다. 그래서 적극 추천한다.

그러다보면 영어에 욕심이 더 생기는 것 같다. 영어 점수를 따야지 하는 것 보다 훨씬 큰 동기부여로 다가왔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2인 1실 기숙사 들어간 첫 날. 룸메가 누구일지 참 궁금했다.



내 룸메 Anthony! 정말 착하고 잘생기고 요리잘하고 장난꾸러기인 완벽한 친구 한국에 내년에 올 예정이다!



Pool Party한 날~!



Jon~~! GV에서 한 학기 있던 것 보다 3주동안 더 많이 친해졌다. 정말 착하고 좋은 친구 존



우리끼리 아메리카 가족티를 맞추고 가족사진을 찍었다.



웹 디자인 수업 마지막 날 프레젠테이션 시간에 사용 한 사진~!
Shinyoung is eating Arik.



Anthony의 집에 놀러간 날
Anthony의 동생들!
정말 크게 될 친구들



우리는 Kayak champ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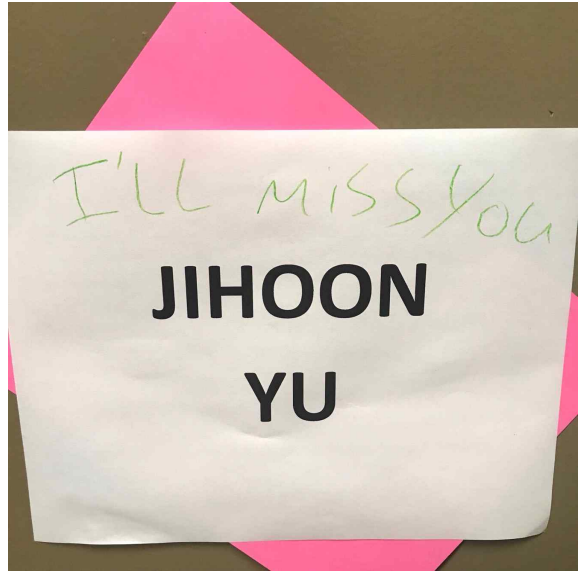
불꽃놀이 본 날



내가 본 미국에서 제일 맛있는 커플



San Francisco 금문교



Thank you Anthony